

動的 概念과 靜의 概念(제4회)

金基錫

그릇된 現實主義

辨證法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 분명히 限定的 論理였다. 이 限定的 論理였던 辨證法이 어느 사이에 누구에게 와서 運動의 論理로 바뀌어진 것임을 우리들은 모른다. 그러나 辨證法이 한 개의 體系있는 運動의 論理로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헤겔』에 있어서이다. 『헤겔』은 辨證法을 완전히 運動의 論理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뵘나파르트[보나파르트]』적 要素를 吸入시키는데미친 한 개의 合理的 汎神論의 完成을 마친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뵘나파르트』의 要素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流波의 近代哲學의 또 近代哲學을 나흔 希臘哲學의 어떤 根本態度를 이룸이니 모도를 對立으로보고 또 그 對立이 어떤 높은 것에 있어서 統一되어야한다고 보는 『씨-자』의 『나포레옹』의 態度를 가르침이다.

『스피노자』는 『모든 限定은 否定이다』라고 가르친다. 『헤겔』은 『스피노자』의 자리에 나서면서 眞實한것은 對立되는것이요. 對立되어야하는대로 어떤 하나에 있어서 統一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 이른바 對立과 統一의 論理가 『헤겔』의 辨證法의 根本構造가 아니면 아니된다. 對立의 統一의 原理우에선 辨證法은 모도를 對立된 것으로 본다. 이미 對立된것으로 보았으며 그 사이에는 矛盾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리고 이 矛盾은 矛盾이면서도 도리어 두 對立을 어떤 하나에로 止揚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니 이러케 보아 내려오는 辨證法은 다시 나아가 어떤 하나가 두 사이의 矛盾을 統一하면서 對立된 것에 있어서 자기를 開展시킨다고 보지 안하면 아니된다.

辨證法은 存在와 思惟같은것을 서로 對立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 사이에 矛盾이었고 이 矛盾은 存在와 思惟를 存在아니면서 思惟아닌 어떤 하나에로 止揚시킨다고 가르치고 存在가 아니면서 思惟가 아닌 어떤 높은 하나가 存在와 思惟를 通하여 存在및 思惟를 허락하면서 存在아니면서 思惟아닌 自己를 肯定시킨다고 가르친다. 『헤겔』은 이 모양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 낮은 데서 높은데 오르고 작은데서 큰데 나아가고 얕은데서 깊은 데로 들어 섰다. 『헤겔』은 나중에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것에 나서야 하는 마즈막 자리에 들어 섰다. 對立과 統一에 있어서 모도를 보기 시작한 『헤겔』은 모도가 그것에 있어서 統一되고 그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最深最遠한 根源的인 實在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헤겔』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辨證法은 『헤겔』에게 있어서 運動의 論理면서 겸하여 發展의 論理였다.

『헤겔』의 觀念辨證法을 거꾸로 노코 그것을 유물변증법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唯物辨證法을 다시 거꾸로 노코 그것을 絕對辨證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神學은 바로 노아도 神學이오, 거꾸로 노아도 神學이니 辨證法을 그 本來에 자리인 限定의 論理로 옮겨 놓는 것밖에 辨證法을 神學으로부터 救授하는 길이 없는 것이다. 限定의 論理는 運動의 論理는 아니다. 發展의 論理는 아니다. 그것은 存在의 性格의 論理다. 性格의 論理는 統一의 論理는 아니다. 그리고 鬪爭의 論理, 克服의 論理는 아니다. 그 자신 存在하는것이 아니오, 存在者가 그것을 性格으로 하고 存在하게되는 無限한 限定의 論理인것이다. 辨證法은 본대 神學은 아니다. 性格學이였고, 또 어데 까지던지 性格學이 되지 안어서는 아니 된다. 現代의 思潮는 『따윈』의 進化論과 『헤겔』의 辨證法을 가지고 있다. 進化論은 싸우는 것이 存在하는것이라고 가르치고 辨證法은 發展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進化論은 싸워야 산다는 데서 사람에게 이리를 가르치고, 辨證法은 어떤 하나가 發展되야 나아간다는 데서 한 개의 假裝한 神學에 떠러진다. 『따윈』조차 잘못배우고 『헤겔』조차 그릇친 오늘의 現實主義는 現實主義라는 이름 밑에서 哲學을 짓밟고 잇는 것이다.